

저축은행·상호금융, 연 4% 이상 고금리 특판상품 쏟아져

금리 상승기 수신 경쟁력 확보 나서
10개월 만기 4.5% 특판상품 등 출시
해지 금리 등 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붙고 있다. 여윳돈을 굴릴 만한 곳을 찾고 있다면 제2금융권의 특판 상품 금리와 조건 등을 눈여겨 볼 만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연 최고 4.1%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한다. 지점에서 상품을 가입할 경우 1년 만기 기준 4.0%, 인터넷 뱅킹·사이드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4.1%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은 3000억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협도 고금리 특판을 실시한다. 여수제일신협은 지난 30일부터 12개월 기준 한아름정기예금 상품을 연 최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앞에 예금·적금 금리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4.3%에 제공한다. 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다.

이번 특판 상품은 신협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온뱅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스토어

에서 신협 은행 앱을 설치 후 가입하면 된다. 단, 특판 가입 하루 전에는 여수제일신협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단기간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한다면 새마을금고도 10개월 만기 고금리 특

판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서울 이태원1동 새마을금고는 10개월 만기 4.5% 금리의 특판을 출시했다. 1000만원을 10개월 예치하면 세전 약 37만 5000원(세전)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특판 상품들은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높은 금리 숫자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중도 해지 금리, 가입 가능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처럼 2금융권에서 특판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배경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신 경쟁력 확보 전략이 꼽힌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연달아 올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면 저축은행 역시 수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고객이 그쪽으로 몰

리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 2금융권은 고금리 특판을 내놓거나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면서 머니브 자금을 다시 예·적금으로 흡수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98조9787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지난 4월 100조6607억원으로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5월에는 100조4487억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신 잔액은 각각 141조2654억원, 526조6597억원이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2조7532억원(1.91%), 4조5515억원(0.86%)씩 줄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손보사, 의료현장으로 간다… 고객 건강위험 사전 예방

삼성화재 질환 예방·관리모델 개발
현대해상 요양병원 등 협업 확대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 시계가 보험금 청구 이후에서 질병과 부당청구가 발생하기 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병원과 만성질환을 미리 예측·관리하는 모델을 만들고, 현대해상은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비 '페이백' 등 부당행위를 막는 자율준수 체계 구축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라이프케어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3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를 공동 설립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모델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양측은 강북삼성병원이 40여년간 축적한 건강검진 임상 데이터와 장기간 추적 연구 역량에 삼성화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경험을 결합한다. 고객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분석해 만성질환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고, 위험 수준에 맞춰 관리하는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도 추진한다.

삼성화재가 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강북삼성병원의 자문·협력으로 기업 임직원용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애니핏프로'를 내놔다. 당시 앱과 측정기기를 통해 혈압·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공동 연구와 실증을 통해 예방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의 경제적 보장을 넘어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도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병원 협업은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 6개 요양병원, 1개 한방병원과 자율준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허위·과잉·형식적 입원과 허위 진료기록 작성, 본인부담금 면제·환인이나 진료비 환급,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을 금지하고 정기 교육과 점검, 정보 공유를 이어가는 내용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금지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린 뒤 지난달 의료기관 18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위험관리의 무대를 병원으로 넓히는 배경에는 불어나는 의료비와 보험금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수익은 18조원으로 10.0% 늘었지만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1.4%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였고 경과손해율은 101.0%로 1.7%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64.0%가 의원과 병원에서 나왔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분기 1584곳에서 2024년 1분기 1382곳으로 13% 줄었다. 반면 손보업계의 요양병원 관련 월평균 실손보험금은 2020년 282억원에서 2024년 1~10월 평균 359억원으로 27%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데이터와 보험사 헬스케어사업 역량과 시너지를 통해 고객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사후보상이 아닌 고객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NH농협금융, '지역밀착금융' 본격 추진

이찬우 회장, 생산적·포용금융 점검

NH농협금융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제3차 생산적·포용금융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찬우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담당 임원과 부사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NH농협금융은 상반기 생산적금융 11조9000억원과 포용금융 2조1000억원을 공급해 내부 추진관리 기준 대비 70%를 웃도는 진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그룹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밀착금융 프로젝트'를 NH생산적금융 4호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4호 사업에서는 지역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융자와 포용금융을 그룹 차원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생산적금융 분야에서는 하반기 IMA 발행과 벤처캐피탈(VC)·농식품 투자펀드 확대를 추진한다. 전북 'NH금융허브'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늘리고, 첨단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전략산업과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NH상생성장펀드'의 후속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후속 펀드는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NH미소금융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한 마을기업 지원, 상생보험 및 취약계층 보험지원 참여, 연체채무자의 재기 지원도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김주형 기자

하나금융그룹, 청라 이전 통합 캠페인 전개

연 7% 금리우대쿠폰 등 혜택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헤드쿼터(HQ)의 인천 청라 이전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한 전 관계사 통합 캠페인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관계사가 참여하는 통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관계사별 금융상품과 이벤트,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해 인천 지역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인천과 하나되는 축제'를 통해 인천 시민과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5만매 한정으로 최고 연 7%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맘 적금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하고, 적금 가입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인천출발크루즈 여행상품권과 인천지역 호텔 숙박·다이닝 이용권, 인천e음카드 등을 증정

한다.

인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그룹 HQ 홍보영상을 부탁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팀에는 팀별 활동지원금 50만원과 활동확인서를 제공하며, 수상팀에는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나증권은 국내 주식을 1주 이상 매수한 고객 중 선착순 7만명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팡 없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은 항공상품권 100만원과 국내주식 매수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100% 당첨 룰렛에 응모할 수 있다.

하나카드와 하나저축은행도 인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마련했다. 하나카드의 인천 지역 가맹점에서 합산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가운데 5000명을 추첨해 최대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저축은행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최고 연 8%의 정기적금 상품을 5000좌 한정 판매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 '대포폰 제로' 가동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대포폰 차단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일 불법사금융 대포폰 발신을 원천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WS)'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AWS는 무제한 전화 발신을 이용한 착신 무력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홈페이지에 불법대부·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해당 번호가 이용 중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대상 요건이 확인되면 AWCS를 즉각 가동한다.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과기부는 검토를 거쳐 해당 전화번호를 영구 이용 중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선 기자

분양 캘린더

4개 단지 3034가구 분양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0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87가구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 교동 리세스302,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비아스테리움거제', 부산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더원7차'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부천시 송내동 '중동역다채로움더원', 세종시 다솜동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자이제니크' 등 3곳이 문을 연다.

이외에 부성종합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중동역다채로움더원'을 공급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